

광주상의, 코로나 위기극복 금융지원 나선다

업체당 1억원 최대 2% 이자 감면 혜택 제공 회원기업 대출이자 최대 3억원 한도 내 지원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한다. 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회원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1억원까지 최대 2.0%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2016년도부터 광주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 연간 1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회원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상의의 예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회원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해 회원기업이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0% 내외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원기업

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상의가 추가 자금을 투입해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회원기업이 광주상의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당초 지원수준인 1.0%에 추가로 1.0%를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기업도 1억원 한도내 2.0%를 지원받아 최대 200만원까지 이차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종판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소진공-이마트, 소상공인 판로개척 앞장

창업·점포 체험 교육·사업화 자금 등 지원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이마트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졸업생의 판로 및 친환경 인증 등 후속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관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점포체험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소진공은 이마트의 유통 전문 인력을 사관학교 교육 강사로 활용해 고객서비스, 매장 연출, 상품 진열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시작으로 이마트 바이어와 사관

학교 교육생 간 1:1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관학교 교육생들의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판로개척 및 후속 성장 지원을 위해 권역별 이마트 점포 내 플래마켓 지원, 친환경 연관상품 대상 친환경 인증 컨설팅을 시범 지원하고, 사관학교 우수 상품을 선정해 SSG닷컴에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진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와 유통 노하우, 친환경 인증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과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축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축협 제공

광주축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광주축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조합원 본인 및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차대우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의해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 학업에 열중하게 해 각자의 꿈을 이뤄 사회에 큰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원한다”며 “항상 조합원과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신뢰받는 통계로 지역발전 선도”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 비전 선포

호남지방통계청은 1일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응답 유공자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통계의 날은 ‘호국조사규칙’이 시행된 1869년 9월 1일을 기념해 1995년 9월 1일 제정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통계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은 대한조선(주)에 대통령, 디와이이노베이션(주)에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통계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포상 수여식 후 기관이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신(新)미션·비전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번 신(新)미션·비전은 새로운 경영이념과 대내·외 환경변화, 정부혁신 의지를 반영해 직원·전문가·지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통계서비스 제공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신뢰받는 통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5개월 연속 늘었다

인구감소 영향 30~40대는 되레 감소
중소기업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30~40대 취업자는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2,483만 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1만 7,000명 늘어나는 등 1.7% 증가하며 등 5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6.4%, 30세 미만은 4.5%, 50대는 1.5% 증가했다. 반면 30대 취업자는 2.4%, 40대는 0.8%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6년 5개월 연속, 40대는 2015년 1월부터 6년 7개월 연속 줄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핵심 인력인 30~40대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인구감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30대는 지난 2005년부터, 40대는 201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서 30~40대의 노동 공급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40대의 대기업 취업자가 2년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인구 요인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

우 40대 취업자가 79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7.2% 늘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 1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대기업 40대 취업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대기업 30대 취업자는 올해 4~5월 줄었다가 6~7월 다시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2%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또한 409조 7,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4조 3,000억원 늘었다. /오지현 기자

경제 프리즘

포스코, 미국 ATI와 MOU

포스코는 글로벌 2위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사인 미국 ATI(Array Technologies Inc)에 철강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PosMAC) 등 소재와 태양광 구조물, 관련 부속품의 공급과 설계·이용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ATI는 미국 뉴멕시코주(州)에 본사를 둔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부속품 설계·제작사로 나스닥(NASDAQ)에 상장돼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유럽 등 전세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7%로 높다. 포스코는 포스맥 등 소재를 태양광 부품으로 가공해 ATI가 참여하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공급하게 된다.

한솔제지-유한양행, 패키징 개발

국내 최대 종합제지사 한솔제지와 제약업계 1위 기업 유한양행이 친환경 패키징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한솔제지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와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 생활용품 등에 적용 가능한 종이 기반의 친환경 패키징 소재를 개발·도입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해 친환경성과 보존성을 높인 한솔제지의 종이 패키징 소재를 유한양행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해 고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혁신기술 전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2021)에서 국내 첫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할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오는 8~1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주관사인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적용 예정인 물 특화 기술과 12월 입주 예정인 스마트 빌리지 내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 정수장, 지능형 도시관리 증강현실(AR), 로봇 패트롤, 실시간 건강관리 등 일부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과 국제표준 제안·인증을 통한 외국시장 진출 기반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눈앞에 다가온 스마트시티의 일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